

觀音說話의 상상력과 소설발생의 문제

- 羅麗時代 觀音說話의 형성과 전개 -

오 대 혁*

〈목 차〉

- | | |
|-----------------------|--------------------------|
| I. 머리말 | Ⅲ. 관음설화의 서사유형 |
| Ⅱ. 관음설화의 상상력과
형성배경 | Ⅳ. 소설발생의 문제-결론
에 대신하여 |

I.머 리 말

觀音說話는 현실적 삶의 고통에 휩싸인 중생의 求福과 깨달음(悟道)의 문제를 관음과 관련해 제기하고 있는 서사물들이다. 文殊, 普賢, 虛空藏, 地藏, 大勢至菩薩 등과 함께 관음보살은 大乘佛敎에서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자들이나 복을 구하는 이들에게 이상적 존재로 인식되어 불교계 서사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형상화된 존재인 것이다.¹⁾

『華嚴經』에서 菩薩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만 一切衆生을 救

* 동국대 강사

- 1) 이 글은 신라·고려시대에 산출된 관음과 관련된 서사물(narrative)들을 대부분 서사문학 장르 중 설화에 소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여겨 〈관음설화〉라 범칭해 다루려 한다. 한국 서사문학사의 전개, 특히 소설 발생의 계기를 유형 분석 부분에서 살피게 될 터인데, 거기에서 서사적 편폭의 차이를 들어 설화에서 소설로 이행해 가는 단계의 형태가 어떤 것일 수 있는지 언급하게 될 것이다.

護하기를 바라며, 일체중생을 이익되게 하는'²⁾ 존재라 이야기된다. 下化衆生을 통해 上求菩提를 성취하려는 보살들에 대한 신앙은 불교 신자들의 삶에 매우 가깝게 다가서 그에 대한 찬미의 노래와 영험담들을 유통케 하였다. 그 가운데 관음보살은 한국인들의 신앙생활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의 욕망과 삶의 진리를 고뇌케 하는 중요한 서사적 모티프로 기능해왔다. 관음과 관련된 서사물들은 佛經과 偽經, 創作說話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를 통해 한반도에 전해졌으며, 그 영향 아래 새로운 서사물들이 탄생했다. 예컨대, 『法華經』과 같은 大乘經典에 전개된 관음의 형상은 『高王觀世音經』과 같은 위경을 낳았고,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관음보살과 관련된 수많은 창작 서사물들을 유통케 만들었다. 신라·고려시대 불교신앙의 양상을 흥미롭게 드러내는 『三國遺事』를 보더라도 다른 보살들의 설화가 한두 편 실려 있음에 비해 유독 관음설화만은 스무 편 가량이 실렸다. 이후에도 관음보살의 형상은 불교설화로써 구비 또는 문헌으로 끊임없이 전승되었고, 소설문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학연구자들은 신라·고려 시대의 서사문학사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을 견지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 관점은 당대의 서사물들을 조선시대 소설 이전 단계의 것으로 해석하려는 의도 아래 '說話段階'의 작품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관점은 『崔致遠傳』·『調信傳』 등 몇 편의 작품을 거론하면서 그것들을 '傳奇的 轉變 과정이 존재하는 단계'의 작품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중국 '變文'과의 상관성 속에서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한국 서사문학사를 단일한 서사 장르의 연속으로 재단함으로써 문학 작품이 산출된 역사적 시공간의 '구체적인 전체'를 안일하게 구성하려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³⁾ 이제는 내려 시대 서사문학이 지닌 다층적 면모를 드러내는 가운데 그 '중추'를 드러내는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신라·고려시대의 관음설화에 대한 연구는 한국 불교설화 형성 과정이나 서사문학사 전개 문

2) 『華嚴經』 제11권(『大正新修大藏經』 권9, p.466).

3) 拙稿, 『調信傳의 구조와 형성배경』, 『한국문학연구』 20집, 한국문학연구소, 1998.

제 등과 관련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신라·고려시대의 관음설화는 대부분 『삼국유사』에 전한다. 거기에는 「調信傳」·「白月山兩聖成道記」 등 서사문학사에서 장르나 문학적 특성 등의 측면에서 논쟁으로 치달아온 작품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관음설화 연구는 한국인의 불교신앙과 사상, 소설발생의 한 계기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세밀한 검토를 요한다.

이 글은 먼저 신라·고려시대 관음설화의 형성배경에 대해 살필 것이다. 여기서 관음보살과 관계된 불경·영험설화의 유통이 중국과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밝혀질 것이다. 다음으로는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신라·고려시대의 관음설화의 전개양상을 네 유형으로 살피면서 형상화 방식을 문제삼고, 그것이 후대 서사문학에 끼친 영향을 간략하게 언급하려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관음설화를 비롯한 불교계 서사가 지니는 구조상의 특징이나 문학사적 의의를 되새겨볼 수 있을 것이다.

Ⅱ. 관음설화의 상상력과 형성배경

구술사회(oral-society)의 전통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고 變容되어간 求福과 깨달음의 안내자가 곧 보살이라는 존재였다. 보살의 이념과 초인간적 형상은 '規範化'와 '中心化'를 낳는 經典이라는 곳에 안착되었으며, 이후 그 불경에서의 보살의 역할과 형상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은 보다 다양한 문헌 또는 구비물에 전형화된 모습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보살의 수효는 더욱 늘어나 무엇이 최초의 보살인지 확인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4) 인권환(「新羅 觀音說話의 樣相과 意味」, 『新羅文化』6, 신라문화연구소, 1989.; 『韓國 佛敎文學研究』, 고려대출판부, 1999.)은 彌勒, 文殊, 普賢 보살 설화보다 관음설화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삼국유사』에 나타남을 강조하면서 그 양상을 도표로써 드러내고 관음보살에 의지해 현재의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한 민중의식이 작용한 결과라 분석했다. 그리고 김영태는 『삼국시대불교신앙연구』(불광출판부, 1990, pp.193~245.) '여섯째편, 觀音信仰'에서 불교사상 및 신앙적 측면에서 삼국시대 관음신앙의 전개를 살폈다. 이 글은 두 분의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관음보살 역시 『法華經』, 『華嚴經』 등의 불경들 속에 등장해 초인간적 형상으로 신안자들에게 읽혔고, 그 불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복과 깨달음의 안내자라는 전형적 존재로 偽經과 觀音靈驗說話 등의 서사물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관음보살은 六觀音과 함께 三十三體觀音이라는 多身の 형상을 드러내게 되었다.⁵⁾ 이런 현상을 문학적 개념으로 말한다면 樣式化(stylization)⁶⁾ 또는 문학적 慣習(convention)⁷⁾에 따른 서사 경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관음보살과 관련된 서사물들은 당대인들의 '일반적 언어의식', 그리고 그에 대한 '주체의 언어의식'이 결합되어 특수한 강조 패턴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 내려 시대에 구원을 바라는 사부대중의 일반적 언어의식, 그리고 고통받는 사부대중의 구원을 관음보살에게서 찾을 수 있으리라는 서사주체의 의식이 결합함으로써 당대의 삶을 일정 정도 반영하는 관음설화의 양식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모티프라고 불려지는 주제상(소재적 측면 포함)의 양식화, 즉 '수행자의 깨달음 또는 복을 구하는 중생을 구제하는 존재로 관음보살이 반복 출현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살피는 데는 六朝와 唐의 志怪·傳奇, 宋·元의 수필·설화, 그리고 불경·영험담의 영향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관음과 관련해 '佛經→偽經→靈驗說話'로 이어지는 '관음설화의 양식화' 과정을 개략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자.

관음을 이야기하는 불경은 중국에서 약 3세기 경부터 번역되기 시작했다. 『법화경』 계통, 『佛說十一面觀音神呪經』과 같은 密敎 계통, 그리고 『화염경』, 『無量壽經』, 『觀無量壽經』, 『觀世音菩薩授記經』 등 불경의 번역·유통이 그것이다.⁸⁾ 이들 불경들에 나타난 관음의 형상을 대표해 『觀音經』이라는 독립 불경 형태로 유통되었던 『법화경』의 『觀世音菩薩普門品』을 살펴보자.

보문품은 왕사성 영취산에서 석가세존이 무진의 보살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이 관

5) 楊白衣 編, 『佛菩薩의 本籍』, 性法 譯, 韓國出版文化公社, 1984, pp.77~115.

6) 바흐전, 전승희 등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p.185.

7) 노드름 프라이, 『비평의 해부』, 한길사, 1993(12쇄), pp.135~148.

8) 김영태, 위의 글, pp. 193~245.

觀音說話의 상상력과 소설발생의 문제

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觀其音聲하여 모두 해탈하게 한다”⁹⁾는 것을 전제한 후 석가 세존은 ‘장애극복’과 ‘化現의 형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중생의 장애는 큰불·큰물·표류·위해·악귀·속박·도둑·淫慾·성냄「瞋恚」·어리석음·無子女 등이다. 이 장애는 관음의 이름을 부르거나 생각하고 공경하면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 관음화현의 형상은 佛身, 辟支佛身, 聲聞身 등 33應身으로 드러난다. 묘한神通의 힘을 고루 갖추어 지혜의 방편으로 등장하는 응신은 六度衆生이 生死輪廻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한 모습이다.

그런데 여기서 장애극복과 화현의 형상은 두 측면에서 읽혀질 수 있다. 우선 문면에 드러난 표면적 의미에 집착하는 것이다. 즉, 장애극복의 내용이 관음보살의 영험이적 그 자체로만 받아들여지는 경우이다. 불교적 이치를 탐구하고 깨달음에 관심을 두기보다 현실적 고난을 呪術에 의존해 극복해 보려는 기복 신앙에 젖은 당대인들에게 관음보살이 절대적 의지처로 인식되는 것이다. 많은 관음영험담의 창작은 이러한 불경의 표면적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관음의 영험은 불교적 진리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예컨대 ‘큰불의 장애 극복’은 보는 것을 돌이켜 自性を 회복하고 空을 깨달으라는 것이다.¹⁰⁾ 결국 보문품에 드러난 관음은 근기가 약한 일반 대중에게 절대자의 형상으로, 교리를 깊이 연구하는 이들에게는 불교사상의 비유적 표현으로 읽히는 ‘개방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처럼 관음 관련 불경에는 ‘관음화현의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개방적 모티프들’로 충만해 있었다.

이러한 관음을 이야기하는 불경들을 바탕으로 『高王觀世音經』·『觀世音十大願經』·『觀世音菩薩往生淨土本緣經』 등 위경들이 생산되었으며, 『光世音應驗記』·『法苑珠林』·『繫觀世音應驗記』 등 영험설화집이 六朝 이래로 중국에서 유행하게 된다. 『관세음보살왕생정도본연경』은 관세음보살이 극락세계로부터 靈山會上에 와서 자신의 本緣을 이야기한 것이다.¹¹⁾ 長那라는 장자가 부인을

9) 若有無量百千萬億衆生 受諸苦惱 聞是觀世音菩薩 一心稱名觀世音菩薩 即時觀其音聲 皆得解脫.

10) 『首楞嚴經』 第6卷, ‘知見旋復 令諸衆生 設入大火 火不能燒’(한길로 법사 주해, 『수능엄경』, 보연각, 1982, pp.525~526 참조.)

11) 『卍續藏經』 卷 87, 288장.

언어서 早離·速離 두 아들을 두었는데, 일찍 부인과 사별하고 재취를 해야 했다. 그런데 계모는 비정한 인물로 장나가 장사를 떠난 사이에 두 아들을 무인도에다 버려 두고 돌아와 버린다. 버려진 형제는 굶주림에 시달려 죽음의 목전에 이르자 보살이 되겠다는 誓願을 세우고 쓸쓸히 저승으로 떠나간다. 한편 장사를 떠났다 돌아온 장나는 사라진 두 아들을 찾아 헤맨다. 가까스로 그가 찾아낸 것은 무인도에 쓸쓸히 남아 있는 두 아들의 유골과 서원의 글뿐이었다. 그는 전생의 업에 의한 비극이라 여기고, 五百大願을 세운 후 두 아들을 따른다. 이러한 줄거리로 이어지는 本緣經은 장나를 釋迦牟尼佛, 조리를 觀世音菩薩, 속리를 大勢至菩薩의 본생 인연이라며 결구를 맺는다. 여기서 두 아들이 세운 서원은 『법화경』 보문품의 내용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불경의 내용에서 '여백'으로 남는 부분을 확장해 흥미롭게 불보살의 본연을 서사화하고 있는 것이 '위경'인 것이다.

한편 관음보살의 영험설화는 관음과 관련된 불경 자체의 영험성이나 관음의神通력을 구체적 현실 공간으로 끌어들이기도 하였다. 『光世音應驗記』에는 모두 7편의 영험설화가 실려 전하는데, 낙양의 신도였던 長舒가 『광세음경』을 독송함으로써 화재를 면하였다는 따위의 이야기들이다.¹²⁾ 이 이야기는 『법화경』에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설사 큰불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니, 이 보살의 위엄과 신령스러움 때문'¹³⁾이라 한 대목을 바탕으로 허구화된 것이다. 또 다른 다음의 이야기 역시 『법화경』 보문품에서 '큰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된다'¹⁴⁾는 서술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 ㉠ 송나라 스님 축혜경은 관능인으로 관음경을 독송하며 열심히 수행했다.
- ㉡ 원가(元嘉) 12년(435) 형양에 살다 홍수를 못견디 노산행 배를 탔다.
- ㉢ 갑자기 폭풍우가 밀려왔고, 사람들은 간신히 피신했다.
- ㉣ 그는 혼자서 배 안에 남아 있게 되었다.
- ㉤ 당황한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정성을 다해 『광세음경』을 읽었다.

12) 傅亮, 『光世音應驗記』(唐道世, 『法苑珠林』 23, 獎導篇 15; 『大正新修大藏經』 53, p.459.)

13) 若有持是觀世音菩薩名者 設入大火 火不能燒 由是菩薩威神力.

14) 若爲大水所漂 稱其名號 卽得淺處.

觀音說話의 상상력과 소설발생의 문제

㉔ 홀연히 배가 언덕 위에 닿았다.

㉕ 사람들이 말하길 수십명의 장정들이 배를 끌고 언덕으로 오더라 했다.¹⁵⁾

불경에서의 간략한 觀音願力の 서술은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초현실적인 '관음본연'을 설파하는 '위경'과 관음의 영험이적·신통력을 이야기하는 '영험설화'를 낳게 했던 것이다.¹⁶⁾ 불경의 내용을 그대로 떠받들면서 영험 이적을 통해 사부대중의 관음보살 신앙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지닌 서사물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인 것이다. 正典(canon)으로서의 신성성과 규범·기준으로서의 성격을 절대 침해하지 않으면서 불경의 내용을 확장·허구화한 이런 서사물들은 弘敎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떠맡았다.

나려시대 관음설화의 형성 배경에는 이러한 관음 관련 불경과 중국의 영험설화 등의 영향이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진흥왕 재위 26년(565)에 有司와 明觀이 가지고 들어온 불경이 1700여권에 이르렀으며¹⁷⁾, 통일 신라 시대에 이르러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가 지어졌고, 고려조에 들어서 아홉 차례에 걸친 藏經수입·간행이 이어졌다.¹⁸⁾ 불경 유입과 더불어 신라 말부터 공식적 사신 왕래가 빈번했으며, 유학생·승려·상인 등의 교류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志怪·傳奇나 佛敎靈驗說話의 유입 또한 이어졌으리라 추측된다.

최근 국내에 소개된 일본 東京大學 도서관 소장본인 『法華經集驗記』 上·下 2권은 7세기 후반에 활동한 新羅僧 義寂이 찬술한 것으로, 불교영험설화 전래의 모습을 확인케 하고 있다.¹⁹⁾ 이 문헌은 『법화경』의 持頌·轉寫 등을 통해

15) 傅亮, 『光世音應驗記』(『大正新修大藏經』 53, p.459.)

16) 『오왕광세음경』 영험담은 孫敬德이라는 자가 이 불경을 암송해 망나니의 거둬되는 칼날에도 목숨을 잃지 않는 환술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道宣, 『續高僧傳』, 卷29 「周州大像寺釋僧明」條) 이처럼 대부분의 영험설화는 志怪的 성격이 드러난다. 그리고 후에 당 傳奇에는 불교의 선교적 측면이 있는 작품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즉 <위경> 및 <영험설화>의 창작에 중국문학사의 지괴·전기 등의 서사양식이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정법진, 「唐傳奇的範疇와 分類의 問題」, 『大東文化研究』12, 성균관대, 1978.)

17) 覺訓, 『海東高僧傳』 卷2, 「覺德·明觀」條.

18) 鄭謨, 「高麗初雕大藏經 및 八萬大藏經의 성립과 의의」, 『韓國佛敎史의 再照明』, 불교신문사, 1994.

19) 太田晶二郎, 「寂法師의 法華經集驗記는 現存한다」, 『日本歷史』, 390號, 1980: 貴

얻는 복덕에 얻힌 영험설화들을 『東夏三寶感動錄』을 비롯한 문헌들에서 발췌하기도 하고, 濕州의曇韻禪師에 얻힌 이야기를 의적 자신이 직접 채록하였음을 밝히고 있기도 있다. 卷下의 并序를 비롯하여 31편의 설화를 실고 있는 이 영험기는 불교영험설화의 한반도 전래를 알려주는 최초의 現存 문헌으로 의의가 깊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주석 및 연구 논문은 나와 있지 않으나 조만간에 그에 대한 활기찬 연구가 이루어지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舊唐書』, 『張薦傳』에 『遊仙窟』의 작가 張薦(660?~740?)과 관련해 신라·일본인들이 그의 글을 중히 여겨 入朝할 때면 많은 돈을 들여 그 글을 사갔다는 기사가 실렸다.²⁰⁾ 이로 보아 불교계 서사물의 유입이 일찍부터 있어왔고, 지괴·전기의 유입이 나말 무렵에 이루어졌으리라 추측된다. 이러한 서사물들의 영향 아래 지괴·전기의 형상화 방식이 일정 부분 작용한 불교계 서사물들이 창작·유통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²¹⁾ 관음설화 역시 이러한 불교계 서사물들의 창작·유통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신앙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다채롭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내려시대 서사문학사 전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三國遺事』, 『海東高僧傳』, 『法華靈驗傳』 등 현전하는 문헌들에서 참고 또는 인용하고 있는 서사물들은 중국의 僧傳, 傳奇, 영험설화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重古典籍刊行會, 『東京大學圖書館藏 法華經集驗記 解題』, 1981: 金相鉉, 「日本에 現傳하는 新羅 義寂의 『法華經集驗記』」, 『佛敎史研究』 창간호, 1996, 中央僧敎大學校 佛敎史學研究所, 1996: 金相鉉, 「신라의 사상과 문화」, --志社, 1999, pp.335~337.

20) 박희병, 「羅麗時代의 傳奇小說」,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77, p.126 참조.

21) 필자는 내려시대의 주된 서사양식은 불교계 서사였고, 지괴·전기의 형상화 방식이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중세기 동아시아 서사양식의 보편성을 고려해 전기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전기소설은 불교적 모티프와 불교계 서사양식(위경, 불교영험설화, 고승설화, 승전 등)이 중심을 이룬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내려시대에 중국처럼 불교·도교의 사상적 대결 국면 없이 불교가 계급·계층을 초월한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중국의 전기 문학 작품의 유입에도 한국적 전기 작품은 불교적 성향을 저변에 깔고 유통되어 전기 작품으로 거론되는 「호원」·「백월산양성성도기」·「조신전」 등의 작품을 낳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조신전」에 대한 연구(각주3, pp.357~362)에서 그 사태의 정황을 간략하게 다룬 바 있다.

觀音說話의 상상력과 소설발생의 문제

있음을 볼 수 있다. 『법화영험전』은 『現應錄』·『弘贊傳』·『宋高僧傳』·『太平廣記』·『靈瑞集』·『法苑珠林』 등 중국 문헌에서 100편 가량의 불교영험설화를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문헌으로는 『海東法華傳弘錄』에서 11편, 『해동고승전』에서 1편을 수용했다. 이렇듯 불경과 영험설화의 영향에 힘입어 관음설화의 유통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 유통을 담당했던 집단은 사원의 승려는 물론이요 法華社와 같은 종교단체, 왕실, 일반 민중 등에 걸쳐 있었다. 史書에 등장하는 왕실의 『법화경』신앙 활동이나 관음상, 관음전, 관음송, 관음포 등 불상·佛殿·물명·지명 등의 존재²²⁾는 관음설화의 유통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증거 기록이라 하겠다.

Ⅲ. 관음설화의 서사유형

나려 시대에 창작된 관음설화는 『삼국유사』와 『법화영험전』에 실려 전한다. 『삼국유사』에는 21편의 관음설화가 실려 있고,²³⁾ 『법화영험전』에는 『삼국유사』의 관음설화 2편이 커다란 변개 없이 실렸다.²⁴⁾ 이외에도 후대에 문헌전승물이 있고 구비전승 또한 지속된 경우가 있지만, 대체로 『삼국유사』의 관음설화가 나려 시대 전체 문헌설화의 기저를 이룬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설화들을 보면 ‘중국 배경’의 설화가 1편, ‘신라 배경’의 설화가 16편,

22) 『고려사절요』만을 보더라도 의종 5년 신미에 ‘침향목으로 관음상을 조각하게 하여 내전에 두었다’ 했고, 공민왕 19년 여름 4월에 ‘影殿에 관음전을 지었’고, 6월에 ‘관음전의 제3층에 대들보를 올리다가 놀려서 죽은 자가 26명’이라는 등의 기사가 등장한다. 또한, 남해에는 관음포라는 포구명이 있었으며(『고려사절요』 신우 9년), 몽고 침입기에는 몽고가 낙산의 관음송 위에서 나는 물을 요구했다고 했다.(『고려사절요』 원종 순효대왕 9년 11월).

23) 권2 기이 「文虎王法敏」條에 1편, 권3 탑상 편 「三所觀音衆生寺」條에 5편, 「栢栗寺」條 1편, 「敏藏寺」條 1편, 「南白月二聖努勝夫得相怙朴朴」條 1편, 「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眼」條 1편,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條 4편, 「臺山五萬眞身」條 1편, 「溟州五臺山寶叱徒太子傳記」條 1편, 「臺山月精寺五類聖衆」條에 1편, 권4 의해 편 「慈藏定律」條에 1편, 권5 감통 편 「郁面婢念佛西昇」條에 1편, 「廣德嚴莊」條 1편, 「懷興遇聖」條 1편.

24) 「敏藏寺」條의 이야기가 『법화영험전』 卷下에 「黑風吹其船舫」로 실렸고, 「懷興遇聖」條의 이야기가 「顯比丘尼身」이란 제목으로 실렸다.

‘고려 배경’의 설화가 4편으로 나타난다.²⁵⁾ 그런데, 이 설화들을 대하면서 빠지기 쉬운 오류는 ‘신라를 배경’으로 한 것이면 곧 ‘신라 관음설화’라는 등식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에 채록되는 구비설화들이 신라를 배경으로 했다 하더라도 현재의 설화로 취급하듯, 중국 또는 신라를 배경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승 당시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배경으로 문헌 또는 구비로 유전되다 『삼국유사』에 정착하게 된 것으로 파악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관음설화를 積層性·民衆性을 기반으로 전승되다 ‘13세기에 문헌 정착된 나려시대의 설화’라 하는 표현이 적확할 것이다.

이들 관음설화들은 『삼국유사』에 정착되기까지 꽤 다양한 전승 과정을 거쳐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설화가 나려시대에 유통된 과정을 <衆生寺 관음영험설화> 5편에 보이는 기록이나, <憬興治病 설화>, <寶開 아들의 無事歸還 설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중생사 관음상과 관련해 일연은, ‘新羅古傳云’이라 하여 중국 화공이 관음의 加被를 입고 관음상을 신라에 전해준 내력을 이야기한 후, ‘나라 사람이 모두가(중생사 관음상)를 우러러 공경하고 기도하여 복을 얻음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였다.²⁶⁾ 또한 미혹하여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던 중생사의 占崇이라는 승려가 관음의 가피로 疏文을 죽죽 읽어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그 당시 점승과 같이 살던 처사 金仁夫는 이 이야기를 고을의 노인들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傳記에 적었다.’²⁷⁾고 했다. 이 두 기록을 통해 ‘관음상’을 모신 사찰이면 관음의 가피력과 관련한 설화가 僧俗, 문헌·구비 사이에서 넘나들고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또한 관음영험설화 대부분이 사찰에 모셔진 관음상과 결부되어 있었음 또한 확인케 한다.

25) 인권환(위의 글)은 「대산오만진신」, 「명주오대산보질도태자전기」, 「옥면비념불서승」을 단순한 관음화현의 기록일 뿐이라 설화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仁容寺관음도량 설치」를 말하고 있는 「문호왕법민」조의 서술이 더욱 단순 기록이며 설화적 서술이라 볼 수 없음에도 <관음설화>라 취급하고 있다. 관음화현을 말하는 것 자체가 관음을 모티프로 취하고 있는 설화임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위 세 설화 또한 관음설화로 취급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26) 一然, 『三國遺事』, 塔像, 「三所觀音 衆生寺」條, ‘新羅古傳云……因成此寺大悲像 國人瞻仰 禱禱獲福 不可勝記.’

27) 一然, 위의 글, ‘當時與崇同住者 處士金仁夫 傳諸鄉老 筆之于傳.’

觀音說話의 상상력과 소설발생의 문제

〈경흥 치병 설화〉는 『삼국유사』와 함께 『법화영험전』 제 14단 보문품에 「顯比丘尼身」이란 제목으로 실렸는데, 附記된 내용을 보니 '出海東高僧傳 第五'라 하였다. 13세기 초 覺訓이 저술한 『해동고승전』은 2권의 流通 篇만이 남아 있는데, 이 기록으로 하여 5권 이상이 존재했을 것이며, 고승들의 행적과도 관련해 승전의 형태에도 관음설화가 출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옥면비념불서승」조에서 관음보살의 현신으로 八珍이 이야기되었던 것은 '鄉傳'이 아닌 '僧傳'이며, 「낙산이대성」조의 관음 親見과 관계하여 의상·원효가 결부되고 있어 승전(또는 고승설화)에 관음보살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개입되고 있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보개 아들의 무사귀환 설화〉는 다른 영험설화와는 달리 여러 문헌을 통해 전승 유포되고 있었다.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殊異傳』(『太平通載』에 의해 확인)에도 실렸으며, 13세기 말 『법화영험전』에 「黑風吹其船舫」이라 하여 실려 전하는데, 了圓은 거기에 「敏藏寺記」와 「鷄林古記」, 天因이 4권으로 편찬한 『海東法華傳弘錄』에도 실렸음을 附記하고 있다.²⁸⁾ 지금까지 『수이전』 逸文으로 보개 이야기를 살펴면서 『법화영험전』의 기록을 언급해오지 않았는데²⁹⁾ 앞으로는 이 사실을 덧붙여야 할 것임을 말해주며, 寺誌의 관음설화가 흥교 목적의 설화집에 올라 문헌전승의 과정을 거쳐왔음 또한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유통의 과정을 거치며 『삼국유사』에 실리게 된 관음설화의 창작자들은 크게 '중생의 求福'과 '깨달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선 문제는 천신숭배, 산악숭배, 정령사상, 무격사상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신앙이 지니고 있었던 祈福的 성격이 불교의 전래와 함께 그 대상을 관음으로 치환시킨 형태로 여겨진다. 물질 풍요와 장수, 행복, 재앙의 방비 따위의 인간의 현세적 욕망은 일반대중이 애초부터 지녔던 것이며, 그것이 불교용성과 함께 기존의 神을 뒤로 한 채 더욱 영험성이 높다고 알려진 관음이라는 절대자를 희구하게 하였다. 이때 관음은 종교로서의 불교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존재였으며, 합리적·논리적 사유를 구축하지 못한 일반대중에게 매력적인

28) 了圓, 『法華靈驗傳』 下(동국대학교 불전간행위원회, 『韓國佛教全書 6』, 동국대출판부, 1982, p.565.)

29) 김현양 외 공역, 『譯註 殊異傳 逸文』, 박이정, 1996.

신앙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의 설화 형성 요인으로 관음 관계 불경과 중국 관음영험설화가 가세하였을 것임은 물론이다.

‘보개 아들의 무사귀환 설화’의 즐거리를 보면, 바다로 장사를 떠난 보개의 아들 長春이 태풍을 만나 오나라에 표류해 들어가 종살이를 하다가 비구로 化身한 관음보살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³⁰⁾ 이는 『법화경』 보문품의 한 구절을 바탕으로 하여 허구화된 것이다. 즉,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유리·자거·마노·산호·호박·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 갔다가 흑풍이 그 배를 몰아 나찰들의 나라에 닿았을 적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두 나찰로 인한 고난에서 벗어나게 되나니’³¹⁾라는 보문품의 서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음 설화 형태를 서사구조적 측면에서 유형화해본다면 <①대중의 ②부정적 현실 타개에 대한 기원을 ③관음이 방편으로써(化現) ④성취시켜준다>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설화수록條項	영험 내용	장애 주체	장애극복행위	化現형상	관음상
文虎王法敏	감옥에서 풀려남	金仁門	기원	·	·
三所觀音衆生寺	죽음을 면함	畫工	·	·	십일면관음상
	아들을 낳음(육아)	催殷盛(催承老)	기원	·	·
	대중들이 시주	僧 性素	기원	비구	·
	화재를 면함	관음상	·	·	·
栢葉寺	유식해짐	僧 占崇	기원	·	·
	포로에서 풀려남	夫禮郎과 양친	양친의 기원	비구	정관음상
敏藏寺	水難을 면함	長春과 寶開	보개의 기원	비구	·
洛山二大聖	화재를 면함	관음상	·	·	·
芬皇寺千手大悲	눈을 다시 얻음	希明과 아이	희명의 기원	·	천수관음상
愛藏定律	아들을 낳음	자장의 부모	기원	·	·
懺典遇聖	질병이 나음	경흥	·	비구니	십일면관음상

30) 一然, 『三國遺事』, 卷3 塔像, 「敏藏寺」條.

31) 『法華經』, 「觀世音菩薩普門」品, ‘若有百千萬億衆生 爲求金銀琉璃磚磑瑪瑙珊瑚琥珀眞珠等寶 入於大海 假使黑風吹其船舫 漂墮羅刹鬼國 其中若有乃至一人 稱觀世音菩薩名者 是諸人等 皆得解脫羅刹之難.’

觀音說話의 상상력과 소설발생의 문제

관음영험설화의 내용은 죽음을 면하게 하거나 질병을 낫게 하는 등 관음 관계 불경이나 중국의 창작 영험담에서 이미 이야기되던 것들이다. 이미 마련된 서사양식을 활용해 내려 시대 일반대중의 욕망과 신앙을 드러내려 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삶의 고난에서부터 죽음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까지 일반대중의 모든 고난을 관음의 가피력으로 극복했다는 서사유형이다.

따라서 관음이라는 초현실적 존재가 벌이는 영험에 서사적 지향이 있고, 관음 관계 불경에서 마련된 모티프를 활용한 단순 서사구조를 띤다. '경흥 치병 설화'처럼 병의 발병 요인에 대한 서술을 통해 불교적 의미를 높이고자 의도한 경우도 보이지만, 직접화법에 의한 교리적 언설이므로 오히려 설화적 흥미성을 감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³²⁾ 결국 이러한 유형은 단순 서사구조를 지닌 설화 단계의 작품들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설화가 어떤 관음설화의 유형보다 소설 작품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반대중의 '기원'이 '관음의 초현실적 능력'을 불러와 '부정적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는 이 유형은 그 대중적 속성으로 인하여 후대에 가장 많이 유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조선시대 이성계의 조부인 度祖의 탄생에 관음의 영험이 끼쳤다는 득남설화에서부터³³⁾, 소설 「謝氏南征記」에서 觀音畫象을 통해 사소저와 유연수가 결연을 성취하고, 사씨가 투신 자살을 하려 할 때 관음보살의 계시로 묘혜가 구해낸 것, 유연수가 귀양살이하면서 죽어갈 때 청량수를 주어 완쾌시킨 것 등 관음영험 모티프가 전체 구성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崔陟傳」에서 萬福寺 丈六佛에게 기도하여 아들 夢釋을 낳고 그 부처가 전쟁의 와중에 그 아들을 길렀다는 삽화가 있는데, 이는 위에 제시한 최승로의 탄생·성장에 중생사 관음상이 가피를 내렸다는 설화의 變移이며, 그 부처가 現夢象으로써 위기의 순간을

32) 了圓, 『法華靈驗傳』 卷下, 「顯比丘尼身」, 「新羅憐興國師 住京師三郎寺 病久不廖 有一尼請看 門人引視之 尼曰 師雖悟大法 合四大爲身 豈能無病 病有四種 從四大生 一曰身病 風黃痰熱爲主 二曰心病 顛狂昏亂爲主 三曰客病 刀杖所傷 動作過勞爲主 四曰俱有病 飢渴寒暑苦樂憂喜爲主 其餘品類展轉相因 一大不調 百病俱起 今師之病 非樂石所療 若觀戲謔事則理矣 於是作十一樣面而舞之 師視詭譎之態 頗歡悅 不知 病之去也 尼出師使跡之 入南花寺佛殿而隱 其所持竹杖 在十一面觀音像前」.

33) 『太祖實錄』 卷1, 「太祖 元年 八月 庚申」條.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삽화들 또한 다름 아닌 관음보살 화신의 상상력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이러한 관음설화 유형은 현전 구비설화에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일반대중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섰던 서사구조 유형이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깨달음'을 문제삼고 있는 관음설화를 살펴보자. 깨달음에 대한 문제는 불교 본연의 문제로, 대승불교에서는 세속에 머무는 신자일지라도 깨달음을 구하는 자라면 누구나 보살로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애써 강조한다. 관음보살의 영험을 모티프로 하되, '깨달음'이라는 불교적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관음설화는 세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유형은 <①고승이 ②관음 친견을 기원하여 ③관음이 방편으로써 ④성취(또는 실패)하게 한다>는 서사구조를 보이는 형태이다. 이 또한 관음 관계 불경에서 설해진 이야기를 모티프로 취하고 있긴 하지만, 그 서사성이 앞서 본 '중생 구복'의 문제 유형보다 뛰어나다.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으로 「낙산 이대성」의 <의상의 관음친견설화>와 <원효와 관음송설화>, 「보질도태자전」을 들 수 있다. 앞의 두 설화는 고승설화라 할 수 있고, 뒤의 것은 고승전의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등장인물들은 모두 관음을 친견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는 서원을 세우고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는 관음이 應身한 것을 본다는 것이다. 앞서 살핀 중생으로 나타나는 관음의 化身이 수행이 낮거나 인간 이외의 존재 앞에 化現하는 것인 데 비해, 응신은 수행이 높은 자 앞에 관음의 형상으로 화현하는 것을 말한다. 곧 의상·원효·보질도는 아라한과를 證得한 상태의 승려들로 등장해 관음의 응신을 친견코자 한 것이다.

의상·원효의 설화는 梵日 설화와 함께 古本에 실렸던 것이다. 의상은 齋戒한 지 7일만에 龍衆·天衆 八部侍從의 안내로 觀音窟에 들어가 수정염주를 취하고, 동해용에게서 여의보주를 받고 나와서는 또 7일 동안 재계해 白衣 관음보살의 응신을 친견한 후 마침내 낙산사를 창건하였다 했다. 그에 비해 원효는 白衣의 여인에게 희롱삼아 버를 달라 하고, 개짐을 빠는 여인네가 건네준 물을 더럽다 하여 쏟아버리고 냇물을 떠 마신다. 그때 파랑새가 나타나 "제호도 마다시는 화상이여(休醜 酬和尚)"³⁴⁾ 라며 날아가니 신 한 짝이 벗겨져 있었고, 낙

觀音說話의 상상력과 소설발생의 문제

산사로 들어가 관음보살상 밑을 보니 전에 보았던 신 한 짝이 벗어져 있었다고 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보살은 이와 같이 만나기 어려우니 오직 몸과 말과 뜻에 허물이 없는 이라야 그 형상을 보고 그 변재를 들으며 온갖 시간에 항상 앞에 나타난다'라 하고 있는데, 원효의 행위는 허물이 있는 것. 즉 비속과 귀천의 分別心을 일으킨 것이었다. 결국, 의상과 원효의 관음친견과 결부된 두 이야기는 아무리 이름난 고승대덕이라 해도 몸과 말과 뜻에 허물이 있다면 관음진신이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 수행 정진하라는 불교적 깨우침을 그 주제로 하고 있다.³⁴⁾ 고승설화 속에서 이처럼 관음은 더욱 큰 깨우침을 낳게 하는 구원자로 등장했던 것이다.

「보질도태자전」은 「대산오만진신」조와 「명주오대산보질도태자전기」에 실린 보질도 태자의 수행과 득도를 말하고 있는 일종의 승전이다. 오대산이라는 불연적 공간을 설정하고 그 불국의 세계를 장엄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보질도(또는 寶川)는 맹렬한 수행을 통해 관음을 비롯한 5만 보살을 친견하고, 마침내는 50년 동안 수행해 보살의 지위로 상승하고 있다. 태자라는 신분으로 구도자의 길을 걷는 보질도의 행적은 붓다의 삶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물론 보질도의 출가 결행의 계기나 고행의 흔적은 세밀하고 흥미롭게 그려져 있지 않으나 붓다가 세속적 군주의 자리를 버리고 '정신적 군주'의 길을 걸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유사성을 지닌다. 태자가 정신적 군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세속적 군주의 거부 → 수행과 오만 보살에의 의례 → 불경의

34) 대부분의 번역서들은 〈休醜和尙〉을 〈제호스님은 가지 마십시오〉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호〉는 원래 牛酪 위에 영긴 기름 모양의 맛이 썩 좋은 액체를 말하던 것이 바뀌어 〈불법의 묘리〉를 뜻한다. 앞서의 뜻으로 〈휴제화화상〉을 〈달콤한 것만을 좇는 스님은 가지 마십시오〉라고 해석하는 것(김영수, 『佛敎說話의 土着化 樣相 考察』, 황태강선생정년퇴임논문집, p.257.)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휴제화화상〉을 〈불법의 묘리를 다 깨친 화상은 가지 마십시오〉라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 관음굴에 들어가 眞容을 보려 했으나 풍량이 일어 들어가지 못했다는 서술로 보아 원효의 修行位階가 아직 응신을 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俞大隱의 번역(『觀音聖典 제2편』, 삼장원, 1992, p.189.)처럼 〈제호를 싫다고 하는 화상〉이라 한다면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할 것이다.

35) 줄고, 「원효설화의 구조와 의미」, 『불교어문논집』 2집, 1997, pp.366~371.

持誦 → 보살로의 상승'이라는 궤도를 걷고 있다. 「보질도태자전」은 보질도 태자가 불·보살이라는 신적 존재로 상승해 나가는 과정을 불교적 상징과 비유의 간략한 서술들로써 붓다의 생애를 염두에 둔 승전을 구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인공이 수행 과정에서 겪었어야 할 내적 갈등의 정황이나 태자로 왕위를 이어야 함에도 승려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과정에서 빚어졌을 갈등양상이 뚜렷하게 살아나지 못했다.

이러한 서사유형은 승전의 일반적 서사 모티프와 맞닿아 있다는 데 서사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후대의 문학적 형상화로는 강화도 普門寺의 창건주라고 이야기되는 <懷正스님의 관음영험담>* 이 있다. 千手呪力으로 관음보살 친견을 지성으로 발원해 解明谷의 문수보살의 화신인 沒骨翁과 보현보살의 화신인 解明方, 그리고 관음보살의 화신인 해명방의 딸과 차례로 만나고, 파랑새(觀音鳥)로 변신해 날아간 곳을 뒤쫓아 가 관음을 친견하고 觀自在普德窟을 발견한다는 줄거리이다. 의상·원효의 설화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두 번째 유형은 <①수행자의 ②맹렬한 成道 기원을 ③관음이 방편으로써 ④성취시켜준다>는 서사구조를 지닌 것이다. 이 유형에는 「백월산양성성도기」와 「광덕·엄장전」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맹렬한 성도 기원'과 '관음의 방편'은 지금까지 보아온 관음설화 유형에 비해 매우 흥미롭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한껏 소설적이다.

「광덕·엄장전」은 향가 「願往生歌」의 부대설화로 연구되어 왔는데, 그 줄거리를 보면 광덕과 엄장이 서방정토를 회구하는 沙門들로 광덕이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염하고 十六觀을 닦음으로써 서방으로 간다. 그리고, 엄장은 광덕의 처와 함께 그의 유해를 거두고 함께 거처하게 되어 통정코자 하였는데, 관음보살의 화신인 광덕의 처가 광덕의 수행 과정을 이야기하며 엄한 훈계를 해 깨우침을 주어 엄장 또한 성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했다. 일종의 광덕과 엄장의 성불담이라 할 수 있는데, 이야기의 핵심은 엄장과 광덕처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의 상황이다. 광덕의 아내로 화신한 관음보살은 色慾으로 수행을 접

36) 『楡岾寺本末寺誌』, 『普德屈事蹟拾遺錄』, 『普德屈沿革』(『普門寺』, 사찰문화연구원, 1996, pp.105~108 참조.)

觀音說話의 상상력과 소설발생의 문제

어버리려는 입장을 호되게 꾸짖는 것으로 그 세속적 욕망을 여의도록 만들었다. 앞선 유형들보다 그 갈등의 양상이 매우 구체화되고, 수행자가 겪게 되는 인간적 갈등을 형상화함으로써 문학적 감동을 자아낸다. 또한 이전의 유형들이 관음의 초현실성이 서사의 지향점인데 반해 광덕이 '신 삼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며 처자를 데리고 살았다'³⁷⁾는 서술이나 鍾觀法으로 수행했다는 등 삶의 구체적 정황이 그려져 현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서술에서 '그 부인은 즉 분황사의 종이니 대개 관음보살 십구응신의 하나였다'³⁸⁾고 하여 관음보살과 관련짓고 있을 따름이다. 분황사의 종이 광덕과 업장이라는 수행자를 도와 성도케 하는 데 일조하였다는 이야기를 불교적으로 의미화하기 위해 천한 신분의 여인네가 관음보살이었다는 서술을 덧붙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신을 삼으며 사는 일상인이나 성도자가 다르지 않으며, 분황사의 종이 관음보살일 수 있다는 聖俗一如의 세계를 「광덕·업장전」은 흥미롭게 서사화했던 것이다.

「백월산양성성도기」 역시 道伴인 努勝夫得과 桓桓朴朴의 수행 경쟁담이며, 성도담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한시를 삼입하고, 등장인물들이 화신한 관음보살을 대하면서 겪는 심리적 갈등, 사건 전개 of 개연성이나 묘사가 소설에 가깝다. 그리고 주제면에서 앞선 작품이 보여주었던 널리 알려진 불교 교리의 재진술을 넘어서 대승적 깨달음과 실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따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작이라 할 만하다. 소승에서 계율은 출가자들만을 통제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 있어 형식주의적 경향이 존재하는 데 비하여 大乘佛敎에서는 菩薩戒思想으로 '실천적 利他行'을 강조한다. 대승보살계에서는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보다는 행위 주체의 더러움과 깨끗함(汚淨)에 역점을 둔다. 그 결과 파계인 듯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순박하고 깨끗한 자비심에서 생겨난 것일 수 있어 대승 정신의 발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예컨대, 不殺生戒는 절대 죽이지 않는 것으로 小乘律에서는 이해되는데, 大乘律에서는 상황에 따라 살생 또한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 한다.³⁹⁾ 「백월산양성성도기」는 그러한 대승보살계 사상을 흥미롭게 드러내 보인 것이다.

37) 蒲鞋爲業 挾妻子而居.

38) 其婦乃芬皇寺之婢 蓋十九應身之一德.

39) 鄭柄朝, 「圓光의 菩薩戒思想」, 『古代 韓國佛敎 敎學 研究』, 민족사, 1989, pp244-245.

미타불을 성심껏 구하던 박박 앞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에 나타난 스무살 무렵의 아리따운 여인은 암자에서 자고 가기를 청한다. 그러나 그는 '절은 깨끗해야 하는 것이니 그대가 가까이 올 곳이 아니요. 어서 다른 데로 가고 여기에서 지체하지 마시오'라며 거절한다. 다시 그 여인은 부득 앞에 나타나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에 '고요하고 맑기가 太虛와 같은데 어찌 오고 감이 있겠습니까. 다만 어진 선비가 바라는 뜻이 깊고 덕행이 높고 굳다는 말을 듣고 장차 도와서 보리를 이루고자 해서일 뿐입니다'라고 답한다. 부득은 '여자와 함께 있을 곳이 아니지만 중생을 따르는 것도 보살행의 하나일 것'이라며 맞아들인다. 그리고서 부득은 그 여인의 출산을 도와주고 목욕까지 시켜주며, 마침내는 그 자신도 그 물에 목욕을 하여 미륵불이 된다. 마침내 그 여인은 大菩提를 이루게끔 도와준 관음보살의 화신이라 소개된다.⁴⁰⁾ 길을 잃고 밤길을 헤매는 여인에게 도움을 준 노닐부득의 행위는 대승보살계의 실천행으로 이해될만한 것이며, 달달박박의 소승적 계율사상에 얽매인 삶을 문제삼고 있는 작품이다.

관음설화 중에서 주제의 심화가 「백월산양성성도기」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鄉傳」에도 실려 있었던 것인데, 그 문학성이 인정되어 「백월산양성성도기」라는 제목으로 독립적으로 유통되었다. 문체나 서사 기법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이라 하겠는데, 이야기의 결말에서 두 인물이 미륵불·미타불로 성불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 앞장에서 보았던 '위경적 경향'을 느낄 수 있다. 즉, 성불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미륵불과 미타불의 '본생인연담'의 서술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대에 나온 석가모니와 아미타불, 그리고 원앙부인으로 나오는 관음의 고행역정을 통한 본생의 성불담인 「安樂國傳」과 유사성이 있는 서사 유형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색욕의 문제라든가 보살계사상의 주제적 측면, 그리고 성도의 형상화와 관련해서는 「淨雪傳」과의 관련성 또한 발견된다.

마지막 유형은 <①대중의 ②세속적 욕망 기원을 ③관음이 방편으로써 ④여의게 한다>는 서사구조를 지닌 것으로, 「調信傳」이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자세한 연구를 시도한 바 있으므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서

40) 一然, 「三國遺事」, 卷3 塔像, 「南白月二聖努盼夫得恒恒朴朴」條

觀音說話의 상상력과 소설발생의 문제

술하고자 한다."⁴¹⁾

이 작품은 일언이 '讀此傳~'이라 서술한 것으로 보아 약간의 변화가 동반되었을지 모르나, 원래의 작품에 매우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는 독립 작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莊園의 관리였던 승려 조신이 명주 날리군 태수 金昕의 딸을 사모하다 꿈을 꾸었는데, 苦海의 인생 역정을 겪고서 꿈을 깨어 깊은 불심으로 淨土寺를 건립했다는 것이다. 전체 서사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하는 모티프는 관음보살의 영험성이고, 부차적 모티프들로서는 현실계(夢遊 以前)와 비현실계(夢中)에 걸쳐 있는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비현실계에만 나타나는 '신라말엽 유랑민들의 고통스런 삶'. 현실계(夢遊 以後)에서의 石彌勒·정토사 緣起라 하겠다. 관음보살의 영험에 의해 꿈 속 경험은 현실적 욕망(渴愛)의 충족이 아닌 無常을 느끼게 함으로써, 조신으로 하여금 세속적 욕망의 헛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 중심 구조이다. 꿈 속 세계의 여인은 관음의 화현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음영험에 의한 불교적 진리의 깨달음을 짜임새 있게 형상화했다는 데 이 작품의 우수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우수성은 꿈 속 세계로 그려지는 신라 말엽 유랑민들의 일반적 삶의 고단함을 매우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 있다. 기아와 전쟁으로 죽은 시체가 들판에 별처럼 널려 있었다는 최치원의 보고⁴²⁾에서 알 수 있는 현실세계를, 「조신전」은 굶어 죽은 아이를 묻으며 통곡하는 장면이나 걸식하던 딸이 개에게 물려 울부짖자 목이 매도록 우는 조신 부부의 장면 등 구체적·극적 장면제시를 통해 드러냈다. 즉, 「조신전」은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다는 불교적 인식론과 세속적 욕망의 허망함이라는 불교적 교리에 입각해 관음보살 모티프를 끌어들이어 창작했지만, 신분적 불평등이나 민중의 고통스런 삶을 여실하게 드러내려 한 점에서 그 소설사적 의의는 남다르다.

이 「조신전」의 유형을 계승하고 있는 작품으로는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와 김만중의 「구운몽」을 상정할 수 있으리라 본다. 양생이 만복사의 부처와 저포내기를 해 배필을 얻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양생은 女鬼와 인연을 맺어 성적

41) 각주3)

42) 「韓國金石遺文」, 「海印寺妙吉祥塔記」, 「餓槽戰死 原野星排」.

욕망을 충족시키고, 결국에는 본능적 욕망과 물질이 모두 허망함을 깨닫는다는 것이 「만복사저포기」의 내용이다. 「구운몽」 역시 꿈과 현실의 이중구조를 통해 무상의 주제를 밀도 있게 그림으로써 「조신전」의 서사적 폭의 확장이나 주제 의식의 심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세 작품 모두 관음의 직접적인 화신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깨달음의 안내자인 관음과 같은 불보살의 영험을 서사구조의 기초로 삼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확인된다.

IV. 소설발생의 문제-결론에 대신하여

관음화현의 상상력은 불경이나 위경, 관음영험설화로의 전변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흥미로운 서사물들을 양산해 냈다. 특히 한반도에서 관음이라는 보살의 출현은 네 유형의 관음설화를 창작하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유형들이 후대의 고소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그러한 서사적 전통은 우리 한국인들의 관음사상과 미의식이 작용함으로써 만들어진 결과라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金鰲新話』를 기점으로 논하는 고소설 발생의 문제에 있어서 관음설화의 轉變 과정이 소설로의 이행과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求福을 문제삼는 관음영험설화에서 세 유형으로 살핀 깨달음(悟道)을 문제삼는 관음설화까지의 서사적 편폭은 소설로의 이행과정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남는다. 이 유형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A : ①대중의 ②부정적 현실 타개에 대한 기원을 ③관음이 방편으로써(化現) ④성취시켜 준다
- B : ①고승이 ②관음 친견을 기원하여 ③관음이 방편으로써 ④성취(또는 실패)하게 한다
- C : ①수행자의 ②맹렬한 成道 기원을 ③관음이 방편으로써 ④성취시켜 준다
- D : ①대중의 ②세속적 욕망 기원을 ③관음이 방편으로써 ④여의게 한다

觀音說話의 상상력과 소설발생의 문제

대중의 求福 成就를 문제삼는 A유형은 '기원→성취'라는 단순구조를 지닌 채 불교에 귀의하게끔 만드는 '관음보살의 靈驗異蹟談'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현실적 장애나 福德을 절대자에게 의지해 보려는 민중의 呪力觀念이 투영된 것이라 하겠는데, 가장 많이 유포되고 많은 소설 속의 삽화로 활용되어 왔다. 그런데 서술자가 불교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면서, 깨달음의 문제를 주체화하고 있는 B~D까지의 세 유형은 한층 소설적 형태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그 중 B는 高僧이라는 역사적이며 뛰어난 존재를 앞세워 관음보살의 신통력과 그 고승의 덕성을 褒貶하는 성격을 드러낸다. C는 맹렬한 성도 기원을 통한 佛菩薩로의 상승을 말하여 종교적 신비감을 자아내게 한다. D는 등장인물의 욕망이 이전과는 달리 부정적·세속적인 문제로 인간 생애의 근본적 고통을 여실히 확인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C는 '종교적 성격'을 한껏 드러내면서 그 서술기법에 있어서 '소설적 성격'을 많이 내포하고 있으며, D는 '종교적 성격'을 일정 정도 벗어나면서 현실 문제에 대한 심각한 접근을 시도함과 동시에 서술기법 또한 뛰어나다.

일반적으로 說話, 傳奇(小說), 變文 등 어느 하나의 하위서사장르에 귀속시키려 하는 나려 시대의 작품들 가운데 관음과 관련된 서사물들은 이처럼 다양한 유형과 서사적 편폭에서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소설 발생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논구되어야 할 점이며, 일정한 개념상의 합의와 그 서사물들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음설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소설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소설 미학적 접근 또한 차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